

8. 관덕정(觀德亭), 영원한 비극(悲劇)의 광장¹⁵⁾

- ◎ 3백 천주교도(天主教徒) 죽어가던 참혹한 피의 현장
- ◎ 3·1 사건의 첫 총탄(銃彈)이 날고
- ◎ 이덕구(李德九)의 효시(梟示)로 장송곡(葬送曲)도 울려 …

관덕정을 생각하면 그 광장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 광장을 생각하면 끝없이 퍼지는 영상을 가늠 수가 없다. 그 참혹한 살육의 현장, 그 절규와 분노의 현장을 뭉개버릴 수가 없다.

이재수(李在守)의 입성(入城)

20세기가 열리는 벽두. 1901년(광무 5) 5월 28일. 스물네 살의 청년 이재수(李在守)가 말을 타고 개신장군처럼 당당하게 제주성(濟州城)에 입성한다. 그의 좌우엔 포수들이 웅위하고 그 뒤로 수천 군중이 따르고

15) 『한라일보』 제42호 (1989. 06. 10).



「신축(辛丑)년 민란 때 천주교도(天主敎徒)들이 집단 살육된 관덕정(觀德亭) 광장」 이 사진은 1901년 5월에 촬영한 것으로 당시의 처참했던 단면을 볼 수 있다.

포성을 울리며 들어왔다. 애티 나는 얼굴과는 달리 그는 전립에 안경을 쓰고 헤진 옷에 장검을 차 살기등등한 기세로 나타나 관덕정 높은 마루에 번치고 앉았다.

이때부터 4·3 사건과 함께 제주도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하나로 알려진 천주교도(天主敎徒)의 집단 살육이 감행된다. 이때 이미 민란군의 입성에 앞서 성내에서 일어난 반란 군중들에 의하여 교도 1백 70여 명이 붙들려와 있었다.

이들 가운데 최형순(崔亨淳)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원래 귀양 온 적객(謫客)이었으나 성격이 좀 경박하여 방성칠(房星七)난이 일어났을 때는 한때 난군의 대장이 되었다가 전향하여 진압군 선봉장이 되기도 했으며 이번 난리에도 천주교도 측에 깊이 간여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민란군이 남성 밖 광양(光陽)에 집결했다는 정보를 듣고 신부와 함께



! 황사평 천주교 순교자 묘역(제주시 봉개동) ! 신축년(1901) 민란 때 희생된 천주교도들의 영령을 모신 곳. 1903년 프랑스와 조선의 합의로 황사평에 묘역이 마련되었고, 천주교 제주교구의 공원묘지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무장한 교도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습격 군중 13명을 사살하고 30여 명을 포박해온 일이 있었고 난군이 황사평(黃沙坪)에 포진하여 일촉즉발의 급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대정군수 채구석(蔡龜錫)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뻔했으나 그의 반대로 무산돼버린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난군 측에서 볼 때 협상조건으로 그의 신원 인도를 요구할 정도로 중요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난군이 입성하게 되리라는 소문이 퍼지자 혼비백산하여 밤에는 동헌 마루 밑에 기숙하기도 했고 낮에는 보리밭에 숨기도 하다가 마침내 붙들려온 것이었다. 이때의 상황을 당시 유배인이었던 김윤식(金允植)은 그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 관덕정 광장(제주시 삼도2동) ! 관덕정에서 동향으로 바라본 광장. 왼쪽으로 복원된 제주목관아의 포정사문루가 보인다.

항천검(荒天劍) 빼들고

이재수는 그를 끌어내고는 대뜸 “네 놈은 죄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놈이다.”고 부르짖으며 항천검(일인 아라까와가 선사한 장검)으로 그의 배를 찔러 창자까지 후비고 죽였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대중이 보는 앞에서 포수들이 열을 지어서서 총을 쏘는 인간과녁을 만들기도 했다.

이 최형순의 참살을 효시로 1백 70여 교도가 혹은 칼로, 혹은 총으로 발에 짓밟히면서 무차별 죽어갔다.

그 뒤로도 천주교도들은 계속 붙들려와 다음날까지 근 3백명이 이 비극의 광장에서 죽어갔다. 천주교도들의 횡포와 봉세관(奉稅官)의 물지각한 과징(課徵) 행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쌓여 일어난 민란이었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였다.



! 관덕정 광장(제주시 삼도2동)! 동남쪽에서 바라본 관덕정. 4차선 도로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여 담소하며 소통하는 광장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제주도민의 영원한 비극이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4·3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 광장에서 첫 총탄이 울리고 그 장송곡(葬送曲)도 이 광장에서 울리고 있다.

기폭제(起爆劑)가 된 발포(發砲)

1947년 3월 1일. 오현중학교와 제주북국민학교에서 3·1절 기념행사를 마친 시위 군중이 이 광장에 이르렀을 때 기마(騎馬)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고 마침내 경찰이 쏜 총탄에 군중 6명이 죽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바로 엄청난 4·3 사건으로 몰고 가는 기폭제요, 첫 신호탄이었다고 할 것이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이 3·1 사건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도청을 비롯하여 도내의 여러 관공서, 학교, 단체로 파급되어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급기야 좌익 인사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어났고 좌익에 대한 철저한 탄압은 그들을 산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서청(西靑)을 비롯한 일부 청년 단체들의 과격한 행동은 더욱 그것을 부채질했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4월 3일 미명. 드디어 피의 참극(慘劇)이 터지고 지금도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는 수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죽어갔다. 그리고 만 1년이 지난 1949년 4월 20일. 한라산에서 빨치산을 지휘하던 총사령 이덕구(李德九)가 사살되어 그 시신이 이 광장에 효시(梟示)되었다. 이때 산에는 2백여 명이 남아 있었고 그 뒤로도 완전 소탕될 때까지는 8년이란 긴 세월이 걸리지만 그의 죽음은 사실상 빨치산의 장송곡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 필자도 사람들 틈에 끼어 그 현장을 목격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순간이었다.

진혼곡(鎭魂曲)을 울려...

이 광장에 효시된 사람은 물론 이들만은 아니다. 민란을 주동했던 사람, 모반 사건을 꾀했던 사람 그 밖의 많은 죄인들이 거의 이곳에서 처형되고 효시되었다. 그것이 수십 명이 될지 또는 백여 명이 될지 모르지만 어찌면 이 광장엔 그들의 피가 스며있고 그들의 영혼이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

이제는 그들 수많은 넋을 달래는 진혼곡(鎭魂曲)을 울리고, 다시는 이 광장이 피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드리고 싶다.